

데스크시각



윤 영 기 사회부장

조지 카치아피카스 전 미국 웹트위스 대학교 교수는 연구·저술 활동으로 5·18의 세계화에 기여한 석학이다. 개인적으로 광주에 대한 그의 애정과 헌신은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연 ‘한츠페터’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미안하게도 지난 2015년 출간된 그의 대표작 저술을 최근에야 읽었다. ‘민중을 주인공으로 다시 쓴 남한의 사회운동사’란 부제가 붙은 ‘한국의 민중봉기’라는 책이다. 반가운 마음에 책을 펴 들었으나 ‘6장 광주 민중봉기’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보고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다. “5월 21일 오후 12시20분 수백 명의 투사들과 수감자 가족들, 시민들이 교도소 주위로 모였다. 오후 3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도소를 공격했지만 육박전 이후에 밀려났다. 광주교도소 공격에서 최소 8명이 죽고 70명이 부상당했다.” 그런데 최근 32년 만에 개정 발행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는 국

참을 수 없는 광주의 태만

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계엄 당국은 5·18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기 위해 광주교도소 습격 기도 사건을 조작하였다… 이 사건은 보안사가 5·18을 간첩, 혹은 좌익의 선동에 의해 촉발된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썼다. 5월 당사자나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는, 현재까지의 진실을 되새기는 문장이다. 일단,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검증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척박한 5월의 환경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겠다. 교도소 습격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정 모 씨 등의 저술에서 인용했다는 각주를 달아 뒀으니, 학문적으로도 면책이다.

기억을 이기는 것은 기록뿐

하지만 교도소 습격 사건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이 사건이 ‘빨갱이 도시’로 광주를 악랄하게 매도하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꾀변에 자양분을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실로 37년 동안 광주를 저주하는 악령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도소 습격 사건’의 기술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한 학자는 물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아쉽기만 하다. 이런 방관과 침묵이 이어진다면 책에 담긴 내용은 오독돼 역사적 사실로 굳어져 갈 것이다.

광주의 나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990년대 미국 국무성은 광주시에 1979년 1월부터 1980년 12월 말까지 2년에 걸쳐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국 국무성으로 보낸 방대한 비밀 해제 문서를 제공했다. 광주항쟁 당시 미국의 역할과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이들 문서는 1997년 5·18민주화운동자로 총서(전 61권)로 묶어 발간했다. 국무성의 기밀 해제 문서는 권당 700여 쪽짜리 5권에 담겼다. 여기에 포함된 문서 중 하나가 최근 ‘광주 소요에 대한 체류자의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선교사가 일지 형식으로 써 놓은 이 문서는 광주가 갈구하는 제3자의 객관적 증언(목격자 증언)이 기록돼 있다. ‘5·18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발생했고, 공산주의들이나 불순분자의 책동은 전혀 없었다.’ 미국 대사관이 각별하게 이 문서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보고서 중 가장 균형 잡힌 광주사태 기록이자 분석”이라고 써 놓을 정도였다. 우리는 이 보물을 본의 아니게 20년 동안 방치했다. 이는 5월을 체계·조직적으로 연구할 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결함과 직결돼 있다. 5월을 대표하는 5·18기념재단과 최근 들어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각각 연구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고유 업무를 맡은 직원은 후하게 쳐도 열 손가락 짚을 정도다. 광주시는 영화 ‘택시 운

전사’에 등장하는 브리샤 택시를 시 청사에 전시하기 위해 하루 50만 원씩 임대료를 주면서도 5월 관련 연구비 증액에는 인색하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진상 규명·연구 작업 병행을

5월 역사 연구와 기록의 방치 상태를 이대로 지속하면 그 결과는 볼 보듯 뻔하다. 광주는 취약한 역사적 토양 때문에 늘 극우 보수주의자의 꾀변과 요설에 휘둘리는 운명에 놓일 것이다. 5월을 폄훼하는 세력에 맞서 증언과 정교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5월 세대’가 스러지고 난 이후 상황도 뻔하다. 그 결과는 역사의 교훈이 말해준다. 일본서기(日本書紀)의 ‘4세기 중엽부터 백제가 자주 일대의 마한 소국들을 지배했다’는 기술을 신봉하는 학설에서 벗어나려고 악전고투하는 지역 역사학계가 대표적이다. 3년 뒤면 5·18 40주년이다. 이제라도 5월 역사를 집대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의 결과물인 통서와 실록의 발간을 준비해야 할 때다.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와 전투기 출격설 등 진상 규명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5월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광주의 5월은 잊힐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5월을 현재형으로 바꾸는 역사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은펜칼럼



김 창 균 광주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혼자서 밥 먹는 것을 일컫는 ‘혼밥’이라는 용어는 이제 별로 낯설지 않은 표현이다. 과거에는 혼자서 뽕가를 하면 공상했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으나 이제는 혼자 술 마시면 ‘혼술’, 혼자 영화 보면 ‘혼영’ 등 자기만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늘면서 파생되는 신조어도 계속 늘고 있다. 얼마 전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혼밥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여유롭다’고 하는 것은 혼밥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상황의 심리적 불편을 회피하려고 던지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와 단절할지 각자의 자유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기 고



윤 희 정 한의사

낮에는 진료하는 까닭에 나는 주로 밤을 지새워 책을 읽는다. ‘독서기’와 의사로서 두 삶을 살아내려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한다. 책과 더불어 신문도 중요한 일상의 자료다. 비교적 신문을 꼼꼼히 읽는 편인데, 신문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많다. 아마 여자가, 그것도 젊은 여자가 신문을 보는 것이 흔치 않은 모양인지, 사람들은 신문 읽는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곤 한다. 심지어 이렇게 묻는다. “신문을 왜 그렇게 열심히 보시나요?” 어떤 남성은 내게 다가와 노골적으로 질문한다. “보통 여자들은 신문을 안 읽는데, 신문 읽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상엔나. 신문 읽는 이유를 물어보다니. 난 어쩔 줄 몰라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주말엔 눈 뜨자마자 집 앞 작은 카페로

혼밥 시대의 추석맛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는 이미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혼자임을 내세우는 ‘나 혼자 산다’나 독신 남성의 삶을 보여주는 ‘미운 우리 새끼’와 같은 TV 프로그램도 유행이다. 술 추석에는 1인 가구를 겨냥한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식 대체 식품) 선물 세트’도 등장했다. 명절에 즉석 식품이라니 뭤가 어색해 보이지만, 시장이 나홀로족에 주목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개인주의 확산과 삶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1인 가구가 늘고, 이에 따라 자발적인 혼밥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혼밥으로 나몰라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가 방조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취업, 직장 걱정을 제외하고 자신을 압도하는 감정이 뭐냐고 물으면 ‘고독, 버려짐, 불안, 무언가를 할 여한’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온다고 한다. 그래서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인 ‘관태기(關怠期)’라는 신조어도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대 젊은이들의 80%가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다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적 지상주의의 경쟁적인 교육 분위기와 이에 대한 사회적 묵인,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빚어낸 데에 원인이 있다. 또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SNS로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무한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실패자를 양산하고 낙인찍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현실과 달리 SNS는 고민을 묻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그래서 비교에 따른 피해 의식이 없는 시공간에 안주하려는 자발적 홀로서기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SNS로 이어진 수많은 관계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샌드아이고대학 트랜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를 온전히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보낸 첫 세대인 이른바 ‘아이젠(iGen, 인터넷 제너레이션)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대면 접촉이 적어 심리적으로 오히려 취약하다고 한다. 또한 이성 교제에서도 “오늘날 18세는 이전 세대의 15세 정도, 오늘날 15세는 이전 세대의 13세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연어의 회귀에 비견되는 민족의 대이동은 올해도 어김

없을 것이다. 심각한 교통난마저 감내하며 가족 공동체로 복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 소외’로 요약할 수 있는 지나친 경쟁과 성장 일반도의 사회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가족의 연대감 속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는 심리의 발현이 아닐까. 그런데 혹자는 명절을 일종의 품평회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젊은이들을 ‘모범생과 열등생’, ‘기혼자와 미혼자’, ‘회사원과 취업 준비생’ 등의 이분법으로 대상화하고, 덕담이라는 미명 하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시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친척집에 가기 싫다는 젊은이들의 볼멘소리가 수긍이 된다. 자연히 대화를 기피하고 SNS를 벗 삼아 소통하는 핑계거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혼밥의 시대를 맞아, 이번 추석은 온라인 세계에서 벗어나 살가운 가족의 품을 느끼는 시간과 함께하였으면 한다. 한 울의 실로는 줄을 만들 수 없고, 한 그루의 나무는 숲이 될 수 없다. SNS의 관계망보다는 가족의 손을 모아 줄과 숲을 이룰 수 있는, 가족의 연대로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감싸는 대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 說

최저임금 못 받는 ‘알바생’ 30% 넘는다니

광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이나 됐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다친 청소년들 중 산재보험 처리를 받은 이는 10명 중 1명 밖에 되지 않아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을 하면서 육설·폭행 등을 당한 청소년도 10.3%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피해를 당한 청소년도 4%에 달했다. 아직 어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단순한 용돈 벌이가 아니라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돼야 한다. 청소년들이 노동의 기본 권리나 인권 등을 침해당할 경우 노동청이 아니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필요하다. 각 구청이나 시민단체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지원도 있어야겠다.

이사회 공백 7개월 조선대 정상화 서둘러야

7개월째 이사회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조선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안이 최근 교육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위원들 간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로써 조선대 이사회 정상화 방안 도출은 또다시 한 달 뒤로 미뤄지게 됐다. 조선대 법인 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속 이사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운영권에 대한 구 재단 측과 대학 구성원 간 시각차로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재단 측은 기존대로 이사 9명(개방 이사 3명, 구 재단 측 이사 3명, 교육부와 학교 측 이사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수·직원·총동창회장 200여 명이 참여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설립 취지를 살리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이미 종료된 2기 이사회는 퇴진하고 민주적 임시이사를 선임해 대학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대학 주체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지만 교육부도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의 뜻을 반영해 임시이사 파견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보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으로 청년 나이를 정하지 않아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 따라 각각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인턴제를 모집할 때 지원 대상자를 18~34세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수당 지급 기준으로 보면 광주시와 서울시가 19~29세로 같고 성남시는 19~2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이 청년실업률을 작성할 때는 15~29세를 청년으로 본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할 때 15~34세를 대상으로 한다. 정당에서는 19~45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청년 나이를 정하고 있다. 부산·대구·경남이 15~29세로 젊은 편이고 제주와 충남이 18~34세, 충북이 15~39세다. 광주는 19~39세, 전남은 19~39세로 청년 나이가 가장 많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한 전남 지자체들은 청년 나이를 늘려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반 효과가 없다. 인구 전담 조직을 만들고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악이 무효다. 전남은 2013년 6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올해 3월말에도 인구 190만 명이 붕괴됐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30년 내에 인구가 소멸할 위험 지역에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6개나 포함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20~39세 가임여성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곡성군과 장흥군에 가면 49세까지는 청년 취업을 받는다. 지난해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만들어 청년 나이를 49세까지로 늘렸다. 장흥군은 나아가 다음 달부터 결혼 장려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금을 주는 곳은 많지만 결혼만 해도 돈을 주는 곳은 장흥군이 전국 최초다. 49살 이하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1년 이상 장흥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시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죽했으면 이런 대책을 내놓았을까. 젊어지려면 전남으로 오라고 말하고 싶다. 전남에 오면 당신도 청년이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청년 나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6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